지관스님은

경·율·론 두루 능통



지관스님은 15세때 해인사에서 율사 자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57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63년 마산대에서 종교학을 공부했으며, 76년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강원 졸업이후 70년까지 해인사 강원 강주로 후학들을 지도했으며, 70~72년, 93~96년 해인사 주지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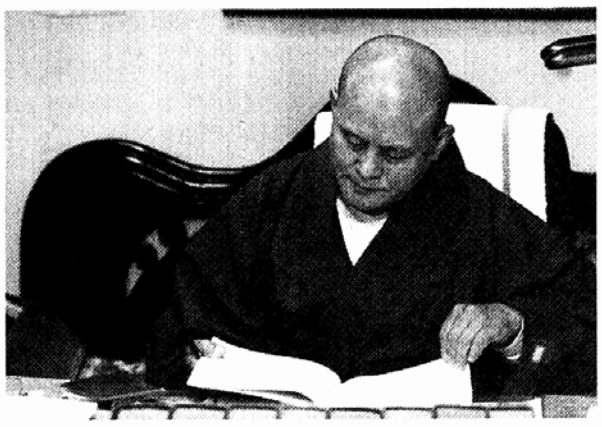
스님은 또한 95년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원장을 맡아 훼손 위기에 처한 가야산과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지역 환경운동 연합 단체들과 함께 골프장 건설 승인계획 완전백지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스님은 75~98년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86~90년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이다. 지난 1월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경 율 론 삼장에 두루 능통한 스님은 "양심을 속이는 중들은 살지 말아라, 계율이 있는 곳에 불법이 있다"는 율사 자운 스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불교대사림〉 등의 간행외에도 〈남북전육부율장 비교연구〉 〈비구니계율연구〉 〈계율론〉 등과 같은 율학관련 교재를 발간해, 율풍진작에도 힘썼다. 또한 1974년 펴낸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는 한국불교학 자료의 서지적 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석문연구회 회원들과 정기답사에 나선 지관스님.



◇지관스님은 연구원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집필 활동에 정열을 쏟고있다.

"불교학은 국학의 원형 한국문화와 정신사 불교의 비중 크고 깊죠"

을 집필중이다. 한글로 된 불교종합대백과사전을 만드는 이 대 작업은 20여년 전 스님이 해인사 강주생활을 할 때 비롯됐다. 일본의 〈망월불교대사전〉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불교연구의 근간이 될만한 불교종합대백과사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91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열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사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 〈가산불교대사림〉 1, 2, 3권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오로지 불교 연구와 집필에만 매달려 발간한 책들을 일렬로 쌓으면 그 키가 1m가 훨씬 넘는다.

젊은이도 좇아가기 힘든 이러한 스님의 열정이 지속되는 것은 투철한 소신이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항상 제 자사랑, 종단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불교, 불교학은 국학의 원형으로 국학, 한국학의 중심에서 불교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가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근간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 발간 작업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스님은 또한 우리 문화의 80%를 차지하는 문화사로서의 불교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온 정신사로서의 불교를 항상 강조하신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1600년 동안의 역대 스님들의 행적, 내면을 밝힌 〈역대고승비문총서〉를 발간했던 것이다.

한국사 속의 불교 원형 찾기를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는 스님은 항상 보따리 하나를 들고 다닌다. 그 보따리에는 〈불교대사림〉 발간과 관련해 수시로 항목을 정리할 수 있는 보유원고 목록과 각종 사업계획서, 그리고 아이템 노트가 들어있다. 스님은 이 아이템 노트에 수시로 메모하면서 한순간도 불교연구에 관한 생각과 계획을 머리와 손에서 떼어 놓은 적이 없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설립때부터 스님을 도와 온 기획실장 현원스님은 말한다. "79년인가 제가 강원을 졸업하던해 해인사에 계시던 스님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스님께 '스님께서는 아는 것도 많으신데, 왜 강사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해야 대접 받는데, 스님도 강의 스타일을 좀 바꿔보시는게 어떠십니까?' 하고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고는 '니나 공갈 많이 치고 살아라. 평생동안 대장경 다 보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바쁘다'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안했던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스님은 말이 앞서는 것을 싫어하세요. 한가지라도 열심히 실천행을 하면 종단도 좋고, 자신도 좋고, 모두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죠. 스님 방에 걸린 '계왕계례(繼往開來)'가 바로 스님이 일상의 지표로 삼는 가르침이예요. 옛것을 오늘에 이어 후대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옛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통, 고승들의 행적과 같은 많은 유산들을 그냥 두지 않고, 후배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공부하고, 가르치고, 책을 내는 일이 스님이 하실 일이라 굳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십니다."

지관스님은 15세때 자운 대율사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지만, 자운스님 외에 모시는 스승이 두분 더 있다. 스님 스스로 '일생에 잊지 못할 삼(三)은사'라 지칭하며 색이 바랜 옛 흑백 사진을 다시 뽑아 간직할 정도로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세 분의 스님. 바로 자운, 영암, 운허 스님이시다. 종단 화합에 앞장섰던 자운스님, 종단 행정에 밝았던 영암스님, 불학 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운허스님을 스승으로 그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제각기 방법은 달랐지만 종단과 불교를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과 뜨거운 정열은 한결 같았던 세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스님의,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지난해 4월 해인사에 조성한 자운스님의 부도와 탑 건립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상좌들이 열반한 스승의 부도나 탑을 대부분 조각가나 석재상에 의뢰하는 것이 보편화된 요즘, 자운스님의 부도와 탑을 조성하는데 있어 전통방식을 고집하며 상좌들과 직접 제작에 참여해 자운 스님의 부도와 비를 완성한 것이다.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의 여러 부도모양을 토대로 탑비를 구상하고, 자운스님의 행장과 인품에 맞도록 전통방식에 입각해 조형물을 만들고 문양을 새겼다. 특히 부도 상대석의 8면에 인도의 우팔리존자, 중국의 도선, 백제의 겸익, 신라의 자장, 통일신라의 진표, 조선의 금담과 자운 율사 등 계율정신을 이어온 율사스님들을 특징적으로 형상화하는 등 우아함을 한껏 드러냈다.

스님은 전례규범과 전승의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스님은 문화적 안목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스님은 탑비 제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발로 뛰어다니며, 율사였던 은사 스님의 가풍과 상징을 탑에 고스란히 담아냈던 것이다. 돌에 마음을 새기는 작업이 바로 탑비라는 스님의 믿음은 '오늘의 문화재'를 만들어 냈고, 당시 봉안식에 참석했던 많은 스님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다.

불교중흥의 초석이 될 인재 양성과 교학 발전에 독보적이고도 다대한 업적을 창출한 지관스님. 출가때의 초발심을 5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니고 실천행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스님의 하루 하루는 우리들에게 산 법문이 되고 있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 무무스님

스님들 대부분은 자기가 태어 난 곳에 있는 사찰로 출가를 하지 않고 아주 낯선 곳을 출가지로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까닭을 나름대로 판단하건대, 어느정도 수행이 익을 때 까지 모든 반연에 대한 '쉼표'를 찍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고향이라는 곳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첫 출가자에게는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수행자는 미리 사찰과 은사를 정해놓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무작정 원하는 사찰에 찾아가서 출가뜻을 밝히고 그곳에서 받아 주면 바로 행자 생활이 시작되기도 한다. 요즈음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가가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허락 없이 출가를 했다가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부모님 중에는 삭발 염의한 모습을 보고 '뜻대로 하소서' 하는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집으로 가자고 강권 하기도 한다.

선원에 있을 때 일이다.

무무스님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딸이었다.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 하는 명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방학때 동료와 함께 해인사에 갔던 것이 출가의 인연이 되었다. 그때 마침 많은 대중들이 법당에 모여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볼 수 있었고 또 간간히 들려오는 큰 스님의 법문은 이해

출가 놓고 어머니와 갈등

정진모습 보며 감화

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단순히 스님들을 모아 놓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무무스님은, "내 속에 알음알이를 만드는 그놈이 누구인고"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열렸다고 한다. 그 후 많은 불교서적을 섭렵했고 방학이면 큰 스님을 찾아 참선하는 법을 배우더니 더 이상 학교에 남아 있을 의미를 못 느껴 출가했다고 한다. 물론 출가는 부모 동의없이 했다. 다 큰 딸이 어느날 부모님께 한 마디 말도 없이 직장을 버리고, 그것도 기독교 선교사가 아닌 불교의 출가수행자로 사찰에 있다는 것을 알아 내고 그 딸을 데리고 가려고 무척 애썼던 무무스님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다. 어쩜 이것은 스님으로 출가한 딸과 기독교 집사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종교갈등이었다.

한사코 자기 길을 가겠다고 어머니와의 만남조차 거부하고 몇날 며칠을 산으로, 다락방으로 숨어 다닌 무무스님은 산을 내려가는 어머니를 먼 발치에서 지켜 보아야 했다. 또 그 어머니는 딸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니 그냥 두고 갈 수 없고 꼭 데리고 가겠다고 사하촌에 방을 얻어놓고 며칠을 잠복하면서 딸을 찾아다녔다. 모녀가 같은 종교였다면 변한 딸의 모습에 반쯤 마음을 접고 딸의 의사를 존중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어머니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무무스님은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출가 생활을 못할지도 모르니 대중스님들은 저를 위하여 무조건 없다고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한동안 온 대중들은 무무스님과 그 어머니 신경전을 바라 볼 수 밖에 없었다.

딸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던 그 어머니가 며칠을 그렇게 하여도 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지쳐서 내려갔고 무무스님 또한 곧바로 그 곳을 떠나 다른 사찰로 거처를 옮겼다. 자기로 인해 다른 대중스님들 정진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무무스님이 떠나 간 뒤에도 그 어머니는 몇 차례 사람을 앞세워 찾아 왔고 올 때마다 혹 딸을 만나 데려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지만 번번이 소식조차 접하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이다. 무무스님의 어머니는 결국 스님을 찾아냈지만 몰래 찾아 가서 스님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예경을 올렸다고 한다. 또 지금은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고 한다. 한마디 법문도 없었지만



정진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스님들마다 나름대로 출가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무스님 만큼 힘든 출가를 한 스님이 또 있을까 싶다. 종교가 다른 어머니가 핏줄의 정으로 행사하는 압력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묵묵히 침묵으로 삭히면서 한치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무무스님의 수행력, 어떠한 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종교가 다른 어머니 마저도 그 앞에서는 많은 것을 느끼면서 얻는 것이 아닐까.

정진으로 얻은 그 힘으로 어머니 마음을 헤아렸고 또 내 속에서 알음알이를 만드는 그 놈을 알 때까지 결코 내가 정진하는 곳을 어머니께 알릴 수 없다며 깊은 산중에서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 놓지 않았으며 또 그 어머니에 대해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하지 않았던 스님이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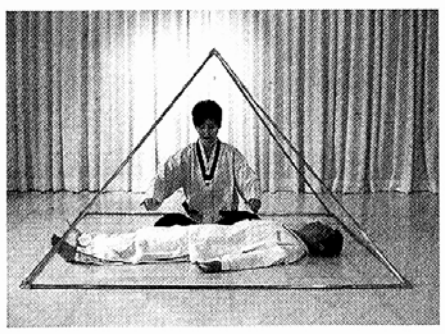
일년이면 반년을 묵언으로 정진하는 무무스님의 표현은 바로 소리가 아니고 느낌, 그것이 아닐까.

▨ 세원사 주지

기공.힐링.명상.자연치유센터 ㈜클리닉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당신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신의 의문은 풀리지 않을것입니다.
몸,마음,영혼의 정화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상담가에게 전생,현생의 의미와 목적을 들어보십시요.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요.



프로그램 안내

@리딩(Reading)요법 전문카운셀러가 상담자의 기운과 영혼의 파장 감지하여 상담자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각성.

@전생퇴행요법 전생퇴행으로 몸과 마음의 정화와 의식의 확대 인간관계 해결등. 많은 문제 해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힐링(Healing) 막히고 울체 되어 있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영능력개발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여 초감각 개발 및 힐링에너지개발.
@치유기공 활.기공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
@소명수련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깨닫게하는과정

㈜클리닉 강남센터:02)3218-7611 여의도센터:02)786-2333
광주센터:062)366-1533
홈페이지주소 http:www.dahnclinic.co.kr
(원장님과직접 상담가능)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정강 대 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입 비법이 있습니다.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 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